

제이스텍 탐방노트

●
Mid-small cap
 Analyst 윤주호
 02. 6098-6666
 juho.yoon@meritz.co.kr

■ 기본사항

- > '95년 설립, '07년 코스닥 상장한 OLED, LCD, 레이저장비 제조기업 (OLED 후공정 전문)
- > 초기 사업모델은 리드프레임 불순물을 워터젯(물 분사)으로 제거하는 세정장비에서 시작
- > '18년 기준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 장비 65%, 레이저 장비 16%, 반도체 장비 8%, 개조 및 파트 등 11%
- > 주주현황: 정재승외 1인 44%, 자사주 0.9% 등

■ 주요제품군 및 사업분야

- > 주요 생산 제품군은 반도체 리드프레임 세정도금 장비, 레이저 커팅장비, 본딩장비 등임
- > 반도체 리드프레임 세정, 도금 장비: 주요 고객사는 대만 ASE, 일본 롬, 유럽 ST 마이크로 등으로 현지 생산공장인 동남아 공장에 주로 납품, 성장성이나 규모는 전방업체 투자규모에 연동
- > 레이저커팅장비: '07년부터 시작, '13년 필름을 레이저로 자르는 장비에 특화, 주요 고객사는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임. Flexible 패널로 들어오면서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의 레이저 커팅기 개발. 경쟁사는 필옵틱스와 이오테크닉스가 있음. 레이저광원은 주로 Coherent에서 수입, 응용기술을 자체개발하여 장비 세팅
- > 본딩장비: 패널을 구동하는 접합부위를 붙이는데 ACF 전도성 필름을 부착, 셀 막대로 열을 전달하여 ACF가 녹으면서 합착시키는 장비. '10년 비상장사인 AST를 인수하여 '11년부터 수주 및 매출을 시작. 경쟁사는 파인텍으로 후공정 시장을 동사와 양분
- > 수주기간 및 잔고: 오더에서 납품까지는 3~6개월 이내, '18년 말 수주잔고는 155.7억으로 3Q17 이후로 줄어드는 상황

■ 투자포인트 (Investment Points)

- > '16~'17년 1차 OLED 장비주 사이클 수혜 경험: '16년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항 5,400억원 규모의 장비 수주로 '17년 ROE 80% 달성. OLED 관련 수주 사이클 시작 시 후공정 발주 수혜 가능성 높음
- > 낮은 해외 매출, 높은 국내 대형업체 의존도: 중국향 OLED 수주 가능성 보다는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 투자에 초점
- > 본딩 장비는 LCD/OLED, Rigid/Flexible, 대형/중소형 모두 유형의 장비 대응, 대형 및 중소형 OLED 투자 수혜가 가능함.
- > CAPA 확대에 따른 향후 OLED 투자사이클 기대 : 클린룸과 인력, 부지 필요함. 인력은 외주용역 등으로 해결 가능. 부지는 '17년 에버테크노(아산)을 인수하면서 7000평 (부평 2,000평, 천안 1,000평, 성환 2,000평)으로 확장, 기존 공장 클린룸은 부평 1000평, 천안 500평, 성환 2000평 수준
- > Lamination 장비 기술개발: OCA, OCR 모두 대응 가능한 Lamination 장비 R&D 완료

■ 재무 및 실적

- > '18년말 기준 현금성자산 79억원 보유, '18년말 기준 자본총계 1,300억원
- > '18년말 자본 기준 현 주가는 PBR 1.38배 수준
- > '18년 매출액 1,262억원(-77% YoY), 영업이익 63억원(-94% YoY), 당기순이익 80억원(-89% YoY)로 최근 3년 중 최저 실적을 시현, '19년부터 전방업체 투자에 따른 실적 반등 기대

동 자료는 적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윤주호)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